

행복을 위한 내려놓음

오랫동안 정치, 경제, 제도과 문화를 통해서 유지되었던 유교의 남성 중심적이고 위계적인 인간관계의 원리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개인의 행복과 여성존중에 대한 문화가 대두하면서 이상적인 아버지와 남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단란 잘 벌어오면 좋은 아버지로 통했고, 권위적이고 위계적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대해도 문제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급처럼 부부간의 정서적 공유와 평등성이 중요한 시대에서 아버지와 남편은 경제적 부양 외에도 감정노동과 가사 및 돌봄 노동의 참여를 요구받고 있다.

부부간의 정서적 공유와 평등성이 중요한 시대에서 아버지와 남편은 경제적 부양 외에도 감정노동과 가사 및 돌봄 노동의 참여를 요구받고 있다.

많은 남성이 이런 변화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변화에 허거움을 느끼고 있다. 일상의 부부관계에서 돌봄 및 가사노동과 관련한 갈등을 겪으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막상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아이를 보거나 집안일을 하라고 요청하면 화가 나거나 반감을 갖게 된다.

맞벌이하는 아내들은 남편들이 아이들을 챙기고 가사에 참여하지만, 자신들처럼 남편들이 아이들을 먹이고, 챙기고, 입히고, 교육하는 일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고 또한 가사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 심심함과 불만을 품곤 한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관계에서 불만을 토로하지만, 남성들은 그들이 정당한 직업임에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때도 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을 보면서 나는 지금 시대에 여성과 남성이 어머니와 아버지,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느낀다.

어떻게 하면 부성과 모성 그리고 부부간의 심세한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남성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자신들도 모르게 생각과 행동에 스며들어 있는 유교주의적 성향을 내려놓는 것이 남성 자신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을까? 또한, 남성들에게 감각스럽게 요구되는 변화에 대해 여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남성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사회 성(Gender)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성”이라는 개념의 영어는 Sex와 Gender가 있다. Sex는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을 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의미하고, 타고난 생식기관을 통해 누가 남성이고 여성임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외는 달리 Gender는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특정 사회와 문화마다 남성은 어떠해야 하고(남성성, Masculinity) 여성은 어떠해야 하는가(여성성, Femininity)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남성성과 여성성에는 특정 사회마다 적합하다고 여기는 여성과 남성성에 대한 기대, 규범, 행동, 태도 등이 내포되어 있다.



태도를 보인다. 또한, 영화는 드리스가 별생각 없이 그린 초보작이 필름을 통해 고가로 팔리는 광경을 보여주며 상류사회의 허위외식의 비관한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드리스가 가난하지만 어린 동생들이 범칙에 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두고 돕는 일이며, 필름의 집에서 몰래 가져갔던 필름 아내의 기념품을 다시 갖다 놓음으로써 도덕적 장광성을 회복한 일이다. 무엇보다 많이 배운 백인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흑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활한다는 설정부터가 프랑스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흥미와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생각하게 하였을 것이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히 10:24)는 말씀이 떠오르는 것은 필자만의 일은 아닌듯싶다. ☺

강단구 근시대 컴퓨터영상선교학과 교수이며 영화 평론가이다. SFC문화연구소장, 기독교미디어카데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강연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명을 선포함으로써 필자고 있다.



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드리스가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과속하다 잡혀자 필름이 위급한 환자 연기를 하며 위기를 모면한다.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신분과 역할을 넘어서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행복조건인 하나인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유대감이 조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드리스는 필름의 손과 발이 되어주며 낙담하는 인생으로부터 필름을 건져낸다. 반면 필름은 드리스의 범죄 경력에도 자신의 삶 깊은 곳까지 마음을 열어 받아들임으로써 드리스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도록 하는데 결정적 이바지를 한다. 성경 말씀대로 ‘협력하여 신을 이룬다(골 8:28)’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켜보게 한다.

물론은 흑인 드리스의 당당한 모습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을 높여준 일은 후시라도 관객이 가졌을 법한 인종이나 계층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드리스는 필름이 미술품을 구매하는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대회화를 수만 프랑에 거래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는 한편으로 그것이 별것 아니라는

예를 들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아내와 아이들을 휘어잡으며 가사와 양육은 아내의 일로 여겨 전혀 참여하지 않는 남성을 남성적이고 좋은 남편 아버지라고 여겼다. 이런 남성성에 대한 인식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잘하고 칭찬하는 남편을 팔불출이라고 부르거나, 신혼 초기에 아내를 잡아서 남편의 말을 잘 듣게 하는 남편을 부러워한다든가 또는 일 때문에 집에 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불평이 없는 아내를 좋은 아내로 여기는 것에도 나타난다. 또한,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버럭 화를 내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 할 때 아이들이 아무 소리 못 하면 자신이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 예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것은 단지 생물학적으로만 차이 나는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서 남성에게 더 권력이나 주도권(power)을 주게 되었는가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다양한 사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회에서 정치, 경제, 법, 제도와 문화를 통해 여성들에게는 없는 남성들의 권력과 힘 그리고 특권들이 재생산됐다. 조선 시대처럼 확연하게 남성에게 제도와 정치체계를 통해서 권력을 주고 유지했던 시대도 있었지만, 현대는 좀 더 복잡하고 미묘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친가정적인 일가족정책의 부재로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생기거나 혹은 직장을 그만두지 않더라도 양육과 관련하여 주된 책임자로서 이들은 힘겨움과 갈등을 겪게 된다. 현 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의 핵심적 영역으로 아동양육이 대두되고 있지만, 남성은 여전히 돌봄과 가사노동의 정도와 내용을 여성과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의 위치에 있다(Johansson & Klinth, 2008). 아직도 남성의 정체성은 일이 그 중심에 있고, 이것은 남성들이 자원과 가족에게 주도권을 갖게 하고, 남성이 여성보다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일 수 있게 한다(맞벌이 여성의 주된 아동양육과 가사참여를 보았을 때 남성의 독립성은 더 대두된다). 이러한 일 중심의 남성성은 남성들이 결혼

이 후 가족을 형성해도 아내와 어떻게 정서적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어떻게 가사와 돌봄 노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무지하게 하는 결과를 남성에게 가져다준다(Seidler, 2006).

이러한 사회 문화적으로 남성들에게 용인되는 권력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인식은 남성과 여성의 생각과 행동 및 부부관계의 많은 영역에서 보이지 않게 나타난다. 먼저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대우가 받는 이 시대는 불과 10~2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음에도 여성들의 권리가 너무 갑자기 신장 하었다고 말하면서 일상의 가족 및 부부관계에서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인 잔재를 고려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보다도 사회적으로나 가족관계에서 남녀의 권력차이가 덜 하다는 미국에서조차도 남녀의 권력차이는 부부관계의 다양한 영역과 심리, 감정, 생리, 태도 등에 깊게 영향 미치며 여성과 남성을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에서 강자는 - 대다수 남성 -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영향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아내가 부부관계의 불만에 대해 남편과 대화하기를 원할 때 남편은 시끄럽다고 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피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이 가진 문제에 대해 도전을 하고 관계의 양상을 변화시키려 할 때 그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관계를 이끌어 나가려는 것이다(Gottman, Coan, Carrero & Swanson, 1998). 그리고 아내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귀찮게 한다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존재로 치부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로부터 지지 않고 고하는 행위이다.

남성들은 사회제도와 문화와 일상의 과정들을 통해 여성보다 더 권력을 쥐고 여성들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을 누린다. 하지만 남성들은 이런 권력구조와 권력이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힘겨움을 겪기도 한다. 미국의 연구를 따르면, 남성들은 남성들 간의 심한 경쟁과 권력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공격

적이고 경쟁적이며 비감정적인 남성이 선호되는 사회 속에서 이런 성향이 적고 성공하지 못할 때 알코올중독이 되거나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을 심하게 겪는다. 이성과 갈등 시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취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남성은 권력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여성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그로 말미암은 손상 및 어려움도 다분히 큼을 보여준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남성의 권력이 재생산되는 사회의 구조와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좀 더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의 중심에는 남성의 권력의 내려놓음이 있다. 남성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알게 모르게 행사하는 권위와 권력이 아내와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일상의 가족관계에서 자신들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남편이 얼마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아내에게 대장하게 대해주는가로서 한 남성은 좋은 남편인가 아닌가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Gender 개념을 통한 남성과 여성의 이해는 이보다 좀 더 근본적인 부부관계의 다양한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상호존중, 이해, 평등성 실현의 중요성을 보여주면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Mahoney와 Kudson-Martin(2009)은 부부가 얼마나 서로 이기고 존중하며 평등하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문항들을 정리했는데 다음과 같다.

1.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에서 상대적인 위치: 1) 가족 중 누구의 의견과 감정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가족의 분위기가 가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2) 아내와 남편은 얼마 나 개인의 목적과 요구, 소망 등을 표현하고 성취하는데 자유로운가? 3) 부부 중 약자인 사람은 어떻게 가사와 양육을 수행하는가?



김성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브랜디윈 캠퍼스(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Brandywine)의 인간발달 및 가족학(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가족공동체를 회복하고 세대를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족학을 연구하고 기쁘고 있고, 부부관계, 남성권과 아버지, 다문화 가족, 질적연구방법론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2. 상대방의 요구와 감정에 대한 민감성: 1) 부부가 얼마만큼 상대방의 요구와 감정에 민감하게 신경 쓰는가? 2) 부부 둘 다 서로에게 관심을 두는가 아니면 부부 중 한 명만이 다른 한 명의 요구와 감정에 관심을 두는가? 3)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의 요구와 감정을 챙기는 것에 치우쳤을 때 다른 한 명은 그것을 인식하고 요구와 감정을 챙기는가?

3. 협상의 패턴: 1) 한 사람의 일정에 다른 한 사람이 주로 맞추는가? 2) 협상을 하는데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그냥 한쪽이 참고 넘어가는가?

4. 복지가: 1)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보다 더 혹은 덜 신리적, 감정적, 신체적으로 행복한가? 2) 부부 중 한 명의 성공이나 행복은 다른 사람의 심한 희생에 기반을 둔 것인가? 3) 남편과 아내의 둘 다 경제적인 책임을 가진다고 생각하는가?

맞벌이가 대부분인 미국의 가정에 대한 많은 연구에 의하면 남성들은 여전히 자신을 가사와 양육의 2차적인 책임자로 보고 있다. 이들의 돌봄과 가사노동의 참여시간은 1990년대에 비해서 그러지 그치지 늘어나고 있지 않다. 이로 말미암은 부부간의 갈등 또한 많다. 하지만 여성은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 하는 희생에 대해 남편이 감사함을 표시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느낄 때 남편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가사와 돌봄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이 남자가기 때문에 가사와 아이 양육에서 면제되었다는 시기를 가지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가사와 양육에 관심을 두고 아내의 요구와 감정에 민감할 때 아내가 하는 노동을 여성이기에 엄마이기에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낀다. 이로 인해 남편들은 기쁨을 느낀다. 결국, 결혼생활의 행복은 남편이 얼마나 자신이 남성으로서 가져오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권력을 내려놓고 아내의 요구와 감정에 민감하며 서로서로 인정하면서 맞춰나가는가에 그 핵심이 있다. 6